창간 22주년에 부쳐

불교 언론 네트워크를 기대하며



원 용 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미디어도 공생체
> 언론사간 유대는
> 언론 후발주자로서
> 필수 불가결 요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늘 억울하다. 항상 달에 치이는 것 같아서다. 모든 진리는 달에 있다고 말할 양으로 행인1 혹은 포졸2로 손가락을 조연시킬 뿐이다.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 줘 보자. 손가락 없이는 아예 달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새에 따라 눈길의 빈도나 심도가 바뀌기도 할 것이다. 도무지 달을 곰곰이 쳐다보지 않고선 안 될 것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손가락질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하자면 달과 손가락은 주종 관계가 아닌 운명적 공생체로 파악해야 마땅하다(指月不分).

달, 손가락 비유는 미디어 판에서도 통용된다. 미디어를 단지 수단으로만 사고하는 이들이 있다. 텔레비전이든 신문이든 정보와 오락을 내놓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유하는 측이다. 이들이야말로 미디어를 손가락 신세로 만든다. 같은 정보나 오락이라 할지라도 실리는 미디어에 따라 그 효능은 달라진다. 종이 만화도 재밌지만 웹툰이 더 재밌는 이유는 손으로 밀어 올리며 느끼는 스마트 폰과의 촉감 쾌락 탓이다. 정보 전달에서 신문보다 페이스북이 수월성을 갖는 것은 댓글을 달 공간을 지녔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달의 동반자이듯 미디어 또한 정보, 오락의 공생체다.

손가락과 달을 분리시킨 후 달에다 강한 방점을 찍는 전통이 셌던 탓일까.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종교 언론의 관심은 참으로 적고 더디다. 가끔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없지는 아니나 제안 수준을 넘지 못한다. 소통 과정이 없이는 종교가 느껴지거나 만져질 수 없다. '불립문자(不立文字)'의 문턱을 좀체 넘지 못한 대중에겐 더욱 그렇다. 달로 이어지기 위해선 멋지고 적절하며 때론 카리스마 있는 손가락이 절실하다. 종교적 가르침이 더욱 필요해진 지금 세상에선 더욱 그렇다. 종교 언론에 미디어 혁신에 대한 관심이 과소함은 그래서 안타깝다.

바보에서 스마트로 별칭이 바뀔 정도의 미디어 판 움직임에 종교 언론의 대응은 늦었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좋은 내용만 있으면 어떤 미디어에 담기든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이 더 힘을 쓰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 고집 탓에 이젠 대중에 접근할 기회마저 차단되는 곤혹스러움도 겪는다. 대중이 애용하는 미디어의 문턱을 넘지 못하니 과거보다 더 나은 내용이 나올 리 만무하다. 악순환의 반복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문턱을 넘어 그 반복을 깨는 지혜를 도모해야 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미디어 판에 맞는 맞춤형 내용을 생산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 후발 주자가 꾀할 일은 늦은 자들끼리의 연대다. 각자 도생으론 해결해내지 못한 부분을 연대로 풀어내야 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힘은 연결,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 우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되 개별적으로 기존 네트워크에 줄을 댈 일은 아니다. 유대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존 네트워크와 협상하는 지혜가 후발 주자로선 필수적이다. 불교 언론 네트워크로 만든 포털, 공동운영 블로그, SNS가 그 시작의 예가 될 수 있다. 연대로 만든 작은 손가락이 오롯이 달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미디어 시대로 종교 언론에 그리 가시밭길만은 아닐 터이다.

晩秋 그리고 수상

아버지와 함께한 가을산사 추억



유 자 효
시인 · 언론인

> 할아버지 묘소 있는
> 부산 선암사 인근 선산
> 이제는 아파트 촌으로
> 가족의 부산시대 막내려

젊은 아버지는 추석 성묘에 나서셨다. 아버지께는 형님이 두 분 계셨지만 큰 형님은 일찍 타계하시고 둘째 형님은 고향인 삼천포에 계셨다. 그래서 부산의 친척 가운데는 아버지가 가장 어른이셨다.

할아버지 차례는 셋째 아들인 아버지가 모셨다. 우리 집에 숙부와 장손인 사촌형이 와서 차례를 지내고 성묫길에 올랐다. 할아버지의 산소는 당감동 선암사 근처에 있었다. 어린 내게 성묘는 하나의 여행이었다.

차에서 내려 시골길을 한참 걸어갔는데 다리 위에 놓인 철교를 건너야했다. 나는 무서워 철교를 건너지 못했다. 아버지가 나를 업고 철교를 건넜다. 그래도 무서워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살며시 눈을 떠 아래를 내려다보니 침목 사이로 개울물이 까마득히 보였다. 나는 무서워 얼른 다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등은 넓고 편안했다. 그 등에 업혀서라면 철교가 아니라 그 어떤 위험한 곳이라도 안전하게 갈 것 같았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 아직도 겁이 많은 내가 가끔 해보는 생각이다.

부산은 할아버지께는 외지였다. 운조루 5대 종손의 4남이셨던 할아버지는 처와 어린 세 아들을 데리고 구례를 떠나 삼천포로 갔다. 삼천포에서 자란 내 아버지는 10대 때 가출하셨고 큰돈을 모아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고아가 된 조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옮겼다.

내 최초의 기억은 할아버지의 죽음이다. 그때 나는 다섯 살이었는데, 어른들의 울음소리에 잠깨어 보니 큰 방 위쪽에 누가 흰 이불을 쓴 채 누워 계시고 남자 어른들이 엎드려 곡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독실한 불자였다고 한다. 집에 불단을 모셔두고 불공을 드렸고 부산 선암사를 자주 찾으셨다고 한다.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선암사 근처의 산지를 사드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곳에 부산 지역 자손들의 선산을 조성할 요량이셨다. 산을 산지 몇 년 되지 않아 할아버지가 타계하셨고, 아버지의 소망대로 할아버지는 밤낮으로 선암사 범종 소리를 들으며 영면하실 수 있게 되었다.

성묘가 끝나면 아버지는 선암사를 찾았다. 아버지가 절에 들어서자 웬 스님이 쫓아나와 반기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와 스님은 절간 툇마루에 앉아 긴 이야기를 하셨다. 그동안에 나는 숙부와 사촌형에 끌려 선암사 앞 개울에서 가재를 잡았다. 깨끗한 개울물에 아른아른 비치는 투명한 가재를 잡는 것이었다. 참으로 청정했던 시절이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시간과 함께 사라져갔다. 아버지는 쉰 여섯 살 때 뇌일혈로 쓰러지신 후 건강을 잃으셨는데, 사촌형수가 형님과 이혼하면서 산을 팔아버렸다. 그때 서울서 나와 함께 살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부실하신 몸으로 산을 찾겠다고 동분서주 다니셨으나 헛일이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더니 산소 바로 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었다. 산소에서 보면 멀리 푸른 연기를 피워 올리던 화장터도 아파트 촌으로 변해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골은 진주의 사촌동생이 고성에 가족 묘지를 조성한다며 이장해 아버지에서 비롯된 부산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부산 선암사는 가을이면 생각나는 내 유년의 잊을 수 없는 풍경이다.

社 說

'10돌' 108산사회의 아름다운 발자취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10주년을 맞았다. 이 기도회는 지난 2006년 선묵혜자 스님이 도선사 주지 재임시절 시작했다.

매달 한 차례씩 사찰을 방문해 기도 정진하는 새로운 순례법회의 모델로 발기대회를 하자마자 종교를 초월해 5천여 회원이 모였다.

관계도 다양했다. 고부지간과 모녀 지간, 부부를 비롯해 수녀, 원불교 교무 등도 있었다. 불교 행사를 넘어 범 종교 행사로 거듭났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가는 곳마다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침체된 한국불교 신행문화에 새 지평을 연 일등공신이 분명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뒤늦게 동참한 이들을 위해 선묵혜자 스님은 제2의 108산사 순례기도를 이어 간다. 9년간 여정을 마친 지난해부터는 53기도도량 순례법회도 진행한다.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들만큼 10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선묵혜자 스님은 108산사 순례기도 10주년을 맞아 10월 14일과 15일 서울 상계동 도안사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지난 9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백서와 화보집 고불식도 갖는다. 총 5권으로 이뤄진 백서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신행현장을 비롯해 대사회적 활동과 언론 보도 등 9년간의 발자취가 총망라돼 있다. 그 속에는 108산사 순례 기도가 그동안 펼쳐 온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환경지킴이 활동, 다문화 가정과 군포교 지원, 장학급 지급 등 활동 영역을 넓히며 발전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10살을 맞은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다시 2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

현장에 맞는 포교 지원 필요하다

조계종 포교원이 추진하는 전법중심도량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에서는 전법중심도량이라는 위상에 맞는 혜택은 부족하고 번거로운 보고서 작성만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올리는 '옥상옥(屋上屋)'의 형국이다.

이런 불만은 올해 전법중심도량 재인가 신청률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올해 대상 사찰은 총85곳인데 8월 30일까지 기한에 신청한 사찰은 절반을 밑돌았다. 포교원은 다시 9월까지 신청기한을 연기했지만, 수치의 변동은 없었다. 현재 재인가를 신청한 사찰은 85곳 중 47곳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다. 상황이 이쯤되니 포교원은 재인가 신청 기한을 10월까지 다시 연장했다.

전법중심도량은 활동이 활발한 사찰을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포교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본지 취재 결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종단 권유로 신청하고 매번 재인가 때마다 난처함을 겪거나, 사찰에 도움도 안되지만 종단에 대한 사명감으로 재인가를 하는 사찰도 있었다.

전법중심도량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워지는 것도 아니다. 교보재와 예산 지원, 간판 게시 정도다. 현장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연령, 지역, 사찰별 특징을 감안한 포교 지원과 컨설팅이다.

뚜렷한 포교 효과도 없고, 현장 불만도 많으며, 관심마저 없다면 전법중심도량 제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매년 재인가율을 유지하며 이를 포교원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탁상행정식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 포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모범 선행 사례를 발굴하고 모델화 해 다른 현장에 적용시켜야 한다. 포교는 '현장이 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제 2차, 각성 큰스님 초청
불교의식 원문 강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제 1차 불교의식 강좌에 성원하여 주신 제방의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2차 강좌는 시다림, 다비의식, 천도재 원문 강의를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 2016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 20일(목) 오후 4시 (1박 2일)
장 소 : 고운사 화엄전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대 상 : 종단 관계 없이 모든 스님
교 육 비 : 1차 참석하신분은 15만원 / 2차 참석하실분은 20만원 (숙식, 교재비)
입금계좌 : 농협 351-0897-4684-23 [예금주 : 이재현(용하스님)]
문 의 : 고운사 종무소 (054) 833-2324
동훈스님 010-2746-0088 해관스님 010-8855-0048
용하스님 010-5497-8018 화암스님 010-5348-4046
도행스님 010-3520-9350

주 최 | 제 16교구 고운사 주 관 | 통화불교 전강원 문하생

통화불교 전강원 제 3기 회장 동훈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

활안 · 호암스님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강의

경덕전등록은 송나라의 도원(道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법등(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 강 사 : 활안스님(금강선원 총재)
호암스님(전 불교통신대학원장 / 내원사 주지)
■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동참비 : 월 50,000원
■ 장 소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6(청량리동)

※ 통신반 모집 : 지방에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